

김슬기 신부와 구재천 신랑을 위한 웨딩 메시지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

오늘 이렇게 멋진 날에 구재천 신랑과 김슬기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가족, 친척, 친구와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갖게 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말에 모처럼 쉬고 싶은데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이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부족한 사람이 늙름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신랑과 아름답고 예의바르고 명랑한 신부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원자력발전소장을 하고 본부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요청으로 주례(?)라는 것을 꽤 많이 썼고 다들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여기저기 다니다가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가워하고 또 고맙다고 커피나 술 한 잔을 대접받기도 합니다.

요즈음은 주례를 세우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는 세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재천 과장이 결혼을 한다면서 뜻밖에 본인에게 지나가는 말로 주례를 부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듣고 넘겼습니다. 함께 일하는 우리 원자력산업협회 내 다른 직원들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유독 구재천 과장이 주례사 wedding message를 부탁해 직원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 것이 걱정되어 쉽게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온 신부인 김슬기 선생님을 만나보고 신부가 본인을 주례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요즈음과 같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긴 인생여정에서 멘토나 롤 모델이 한 두 분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결혼식 주례가 아니라 신랑, 신부 두 분에게 멘토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2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다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30여년을 살아온 양가의 가풍이 서로 다르고 명절을 지키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세상살이를 같이 할 다정한 친구로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많이 칭찬하며 살길 바랍니다. “자기는 정말 멋진 남자야”라고 칭찬해주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신랑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언제 봐도 예뻐”라고 매일같이 해주는 칭찬을 통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칭찬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갈 겁니다.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부부를 서로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왜 배

우자입니까? 서로 배우면서 살기 때문에 배우자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우스갯소리로 듣지 말고 배우자답게 서로의 강점과 약점으로부터 배우면서 격려하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신혼 가정을 꾸리고 처음은 모르겠지만 험한 파도를 만나 이를 헤치며 어려운 세상을 돌이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려울 때 마다 이 두 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슬기 신부와 구재천 신랑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KAIF**